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김선주

청주대학교 치위생학과

A study on the oral health behavio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n universities -with a focus on Chinese students -

Sun-Ju Kim

Dept. of Dental Hygiene, Cheongju University, Cheongju-City 360-764,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ctual state of oral health behaviors of Chinese students studying in Korea to promote their oral health and provide useful reference materials for expanding dental care services and improving relevant systems.

Methods : This research was based on self-filling survey which 413 chinese students in Chungbuk in Korea from April 1 to July 15, 2011. Survey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χ^2 -test, t-test and one-way ANOVA using SPSS WIN 12.0 program and its signification level was 0.05.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sults : In the event of those who didn't use oral hygiene supplies, the largest group didn't use the devices since they didn't know about them well or they didn't need to use. Regarding links between experience of using oral hygiene devices and concern for oral health, those who used oral hygiene devices showed more interest in oral health($p < .001$).

Conclusions : Accordingly it now is required to develop a more specific and systematic oral health program and to offer administrative assistance for foreign students during their stay in Korea.(J Korean Soc Dent Hygiene 2012;12(1):17-26)

keyword : chinese students, oral health behavior, oral hygiene devices.

색인 : 구강건강행위, 구강위생보조용품, 중국유학생

1. 서론

최근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추세에 따라 국내에 여행, 이민, 취업, 비즈니스 및 의료이용 등의 목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숫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¹⁾. 법무부 외국인 출입국 현황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단순노무인력과 방문취업자격(H-2) 동포는 줄었거나 그 증가세가 미미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2005년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10년 현재 45,944명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²⁾.

외국인 유학생은 해당 국가의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학위 과정이나 구체적인 학업목표를 달성하고 학업을 마치면 귀국할 것임이 전제되어 있는 집단을 의미한다³⁾. 대학의 경쟁력 요소 중에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것이 대학의 국제화이며, 정부에서도 우수 해외 인적자원의 개발 및 국내 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Study Korea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국제교육 경험 및 역량 강화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외국 유학생의 인프라 개선, 유학 관련 기관의 해외 네트워크 형성, 한국 유학 홍보 강화 및 효율적 행정지원 체제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⁴⁾. 이처럼 대학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내 많은 대학들은 대학의 국제적 인지도를 넓히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자원 유치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⁵⁾.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수는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가운데 약 70%에 달하며, 전체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⁶⁾.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증가에 따라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환경뿐만 아니라 건강문제 측면에서도 열악한 조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적응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로는 향수병, 의료문제, 언어문제, 재정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⁷⁾. 또한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9년 한·중 문화협회의 연구에서도 한국 생활 중 가장 힘든 점으로 문화적 차이와 의료문제라고 응답하였다⁸⁾. 이처럼 타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유학

생의 건강과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매우 중요하지만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하기엔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구강건강은 전체적인 건강문제와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비교적 소홀히 여겨지기 쉬우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영양분의 흡수와 전신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구강건강은 매우 중요하다⁹⁾. 그러므로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병에 이환되어 치료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기 전에 적절한 구강관리를 통해 구강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해 필요한 시기에 진료를 받지 못하여 병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다¹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 또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재 등의 요인들로 인해 구강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본래의 입국 목적인 학업수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내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생학, 문화, 언어 및 식생활에 대한 연구 및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위생용품의 사용 및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조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1, 11~16)},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체류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구강건강관리행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학생들의 효율적인 학업수행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조사하였다. 중국인 유학생 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중국인 유학생을 무작위 추출한 뒤 자기기입방식에 의한 설문 조사 방법을 실시하였고, 전체 수거된 426부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 13부를 제외하고 총 413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은 김¹¹⁾과 신¹⁷⁾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연구자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응답자인 중국인 유학생을 위해 설문 문항을 중국어로 번역한 뒤 중국인 교수의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고, 중국인 유학생 30명을 임의 선정하여 예비조사를 거친 후 최종 설문을 작성하였다. 조사 항목으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문항(성별, 연령, 학년, 한국 체류기간, 치과치료 경험, 건강보험 유무)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 관한 7문항(1일 칫솔질 횟수,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지 및 사용 유무,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동기, 구강위생보조용품 미사용 이유, 구강보건교육 경험, 구강건강관심도)으로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05에서 검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치과의료 이용에 관한 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리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χ^2 검정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구강건강관심도는 t-test와 one-way ANOVA test 후 Duncan's multiple comparison으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3. 연구성적

3.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전체 조사대상자 중 성별은 여자 60.5%, 남자 39.5%로 조사되었고, 연령은 20~23세 64.9%, 24~27세 32.5%, 28세 이상 2.6%로 나타나 20대 초반이 많았다. 학년은 1~2학년 2.9%, 3~4학년 95.4%, 대학원 이상 1.7%로 조사되어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3~4학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체류기간은 1년 미만인 38.5%로 가장 많았으며, 1~2년 미만 37.3%, 2년 이상~4년 미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N)	%	
성별	남자	163	39.5
	여자	250	60.5
연령	20~23세	275	64.9
	24~27세	138	32.5
	28세 이상	11	2.6
학년	1~2학년	12	2.9
	3~4학년	394	95.4
	대학원	7	1.7
한국 체류 기간	1년 미만	159	38.5
	1~2년 미만	154	37.3
	2~4년 미만	91	22.0
	4년 이상	9	2.2
치과 치료	있다	253	61.3
경험	없다	160	38.7
건강보험	예	234	56.7
가입 유무	아니요	179	43.3
계	413	100	

20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22.0%, 4년 이상 2.2% 순으로 조사되었다. 치과치료 경험은 '있다' 61.3%, '없다' 38.7%로 나타나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건강보험 유무는 '예' 56.7%, '아니요' 43.3%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표 1>.

3.2.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행태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는 2회가 64.2%로 가장 많았고 3회 30.8%, 1회 4.1%, 4회 이상이 1.0%로 조사되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0%로 사용한다는 응답 32.0%보다 많았다. 구강위생보조용품 구매 장소로는 일반 상점이나 편의점 57.4%, 입국 시 중국에서 가져옴 33.7%, 치과 또는 약

국 5.1%, 인터넷 쇼핑몰 1.9%, 기타 2.0%로 조사되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동기는 잇몸병 예방 38.6%와 충치예방 31.1%로 조사되어 대부분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았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은 55.7%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2>.

3.3.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지 및 사용 유무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인지에 대한 조사 결과 치실 60.3%, 전동칫솔 53.3%, 양치용액 53.0%, 치간칫솔 40.9%, 혀세척기 39.5%로 조사되어 치실에 대해 알고

표 2. 조사대상자의 구강건강관리행태

N(%)

구분	빈도(N)	%
칫솔질 횟수	1회	4.1
	2회	64.2
	3회	30.8
	4회 이상	1.0
구강위생 보조용품 사용	사용한다	32.0
	사용하지 않는다	68.0
구강위생보조용품 구매 장소	일반 상점(마트, 편의점)	57.4
	치과 또는 약국	5.1
	인터넷 쇼핑몰	1.9
	입국 시 중국에서 가져옴	33.7
	기타	2.0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동기	충치예방을 위해	31.1
	잇몸병 예방을 위해	38.6
	심미적 목적	13.6
	구취제거	6.1
	기타	10.6
구강위생보조용품 미사용 이유	잘 몰라서	45.3
구강보건교육 경험	필요성이 없어서	35.6
	구매가 어려워서	1.3
	사용이 불편해서	17.8
구강보건교육 경험	있다	44.3
	없다	55.7

표 3.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지 및 사용 유무

N(%)

구분	인지 유무		사용 유무	
	알고있다	모른다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치실	249(60.3)	164(39.7)	37(9.0)	376(91.0)
치간칫솔	169(40.9)	244(59.1)	18(4.4)	395(95.6)
전동칫솔	220(53.3)	193(46.7)	29(7.0)	384(93.0)
양치용액	219(53.0)	194(47.0)	78(18.9)	335(81.1)
혀세척기	163(39.5)	250(60.5)	23(5.6)	390(94.4)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혀세척기와 치간칫솔은 낮았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은 양치용액이 18.9%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치실 9.0%, 혀세척기 5.6%, 치간칫솔 4.4%, 전동칫솔 7.0% 순이었다(표 3).

3.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지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인지 정도에서 치실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치간칫솔(p<.05), 전동칫솔(p<.01), 양치용액(p<.01), 혀세척기(p<.01)의 경우 여자가 남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인지도가 높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치실, 치간칫솔, 양치용액, 혀세척기의 경우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동칫솔은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p<.05)(표 4).

3.5.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치과치료 경험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치과치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1일 칫솔질 횟수와 치과치료 경험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경험에 따라서는 치과치료 경험이 있는 경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이 많았고(p<.001),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치과치료 경험이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 구강건강 관심도에 따른 치과치료 경험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치과치료 경험이 유의하게 높았다(p<.01)(표 5).

3.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구강건강관심도에 대한 문항은 5점 Likert Scale(매

우 관심있다=5점, 관심있다=4점, 보통이다=3점, 관심없다=2점, 매우 관심없다=1점)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p<.05)(표 7). 성별, 학년, 연령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1일 칫솔질 횟수에 따라서는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또한 구강위생보조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구강건강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표 6).

4. 총괄 및 고안

교육시장 개방과 더불어 국내 대학들은 대학의 국제화 및 신입생 유치의 일환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¹⁸⁾. 국내 외국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를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 76%로 전체 유학생 출신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위과정이나 어학연수 등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 유학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¹⁾.

최근 보고된 “외국인들의 고충과 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살면서 겪게 되는 불편사항 중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 다음으로 건강문제를 들었다¹⁹⁾. 그러나 실질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정책 및 의료공급 서비스의 미비와 의료비 부담에 관한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함께 그들의 구강건강에 대한 요구도

표 4.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 인지

구분		성별		연령			계
		남자	여자	20~23세	24~27세	28세 이상	
치실	안다	95(58.3)	154(61.6)	159(58.9)	85(63.9)	5(50.0)	249(60.3)
	모른다	68(41.7)	96(38.4)	111(39.7)	48(36.1)	5(50.0)	164(39.7)
	Total	163(100.0)	250(100.0)	270(100.0)	133(100.0)	10(100.0)	413(100.0)
		$\chi^2=.454, p=.284$		$\chi^2=1.392, p=.499$			
치간칫솔	안다	58(35.6)	111(44.4)	106(39.3)	59(44.4)	4(40.4)	169(40.9)
	모른다	105(64.4)	139(55.6)	164(60.7)	74(55.6)	6(60.0)	244(59.1)
	Total	163(100.0)	250(100.0)	270(100.0)	133(100.0)	10(100.0)	413(100.0)
		$\chi^2=3.173, p<.05$		$\chi^2=.963, p=.618$			
전동칫솔	안다	70(42.9)	149(59.6)	152(56.3)	65(48.9)	2(20.0)	219(100.0)
	모른다	93(57.1)	101(40.4)	118(43.7)	68(51.1)	8(80.0)	194(100.0)
	Total	163(100.0)	250(100.0)	270(100.0)	133(100.0)	10(100.0)	413(100.0)
		$\chi^2=10.988, p<.01$		$\chi^2=6.460, p<.05$			
양치용액	안다	74(45.4)	144(57.6)	146(54.1)	68(51.1)	4(40.0)	169(100.0)
	모른다	89(54.6)	106(42.4)	124(45.9)	65(48.9)	6(60.0)	244(100.0)
	Total	163(100.0)	250(100.0)	270(100.0)	133(100.0)	10(100.0)	413(100.0)
		$\chi^2=5.894, p<.01$		$\chi^2=.982, p=.612$			
혀세척기	안다	50(30.7)	113(45.2)	103(38.1)	56(42.1)	4(40.0)	163(100.0)
	모른다	113(69.3)	137(54.8)	167(61.9)	77(57.9)	6(60.0)	250(100.0)
	Total	163(100.0)	250(100.0)	270(100.0)	133(100.0)	10(100.0)	413(100.0)
		$\chi^2=8.713, p<.01$		$\chi^2=585, p=.746$			

가 증가하며 그에 따른 관련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구강건강관리 실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국내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구강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국내에서 수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구강건강증진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의 1일 평균 칫솔질 횟수는 2회가 64.2%로 가장 많았고 3회가 30.8%로 거의 대부분 2~3회의 칫솔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과 문²⁰⁾의 연구에서 칫솔질 횟수는 1일 2회 46.8%, 3회 31.0%였고, 노²¹⁾의 연구에서는 2회 37.1%, 3회 44.4%, 김²²⁾의 연구에서는 2회 49.7%, 3

회 48.3%, 박²³⁾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칫솔질 횟수가 3.16회로 나타나, 중국인 유학생이 국내 대학생보다는 일일 평균 칫솔질 횟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의 주된 원인인 치면세균막 제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칫솔질이다. 그러나 칫솔이 도달하기 어려운 치간부위의 치면세균막이나 치아 사이의 음식물은 일반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치면세균막의 제거가 완벽하게 될 수 없다¹¹⁾. 그러므로 치면과 치은의 치면세균막을 제거하고 치은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치은상피나 치은열구 내 상피세포의 각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이용하여 치간 사이의 청결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에 관한 질문에서

표 5. 구강건강관리행태에 따른 치과치료 경험

구분	치과치료 경험(국내+국외)		χ^2	p*	
	있다	없다			
1일 잇솔질 횟수	1회	13(76.5)	4(23.5)	6.471	.091
	2회	153(57.7)	112(42.3)		
	3회	83(65.4)	44(34.6)		
	4회 이상	4(100.0)	0(00.0)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경험	있다	103(78.0)	29(22.0)	22.994	<.001
	없다	150(53.4)	131(46.6)		
구강보건교육 유무	있다	128(69.9)	55(30.1)	10.447	.002
	없다	125(54.3)	105(45.7)		
구강건강 관심도	매우 높다	40(81.6)	9(18.4)	15.668	.001
	높다	113(62.8)	67(37.2)		
	보통이다	90(57.0)	68(43.0)		
	없다	10(38.5)	16(61.5)		

*p값은 χ^2 -검정에 의해 계산되었음

표 6.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관심도

구분	구강건강관심도(M±SD) [†]	t/F	p*	
성별	남자	3.64±.82	.589	.556
	여자	3.59±.75		
학년	1~2학년	4.00±.00	.070	.932
	3~4학년	3.44±.53		
	대학원	3.61±.77		
연령	20~23세	3.58±.51	.450	.638
	24~27세	3.61±.77		
	28세 이상	3.71±1.25		
1일 칫솔질 횟수	1회	3.23±.75 ^a	3.343	.019
	2회	3.60±.77 ^a		
	3회	3.66±.79 ^a		
	4회 이상	4.50±.58 ^b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경험	있다	3.81±.70	3.650	<.001
	없다	3.52±.79		

[†]M±SD: 평균±표준편차

*p값은 t-검정 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에 의해 계산되었음

^{a,b}: Duncan의 사후검정-같은 문자가 있는 것은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다(p<.05)

는 32.0%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고,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법을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인 성인들을 대상으로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해 조사한 서 등²⁴⁾의 연구에서도 사용법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한 자가 45.5%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박과 문²⁰⁾의 연구에서도 치실이 남자 15.2%, 여자 16.6%로 남녀 모두에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그러나 소 등¹⁹⁾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대부분이 칫솔을 제외한 구강위생용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이하였다.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사용한다가 88.2%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²¹⁾의 연구에서는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3%였고, 사용하고 있는 구강위생보조용품 중 치실이 24.9%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²³⁾의 연구에서는 치실이 36.0%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양치용액 32.7%, 치간칫솔 29.0%, 혀 세척기 13.6% 순으로 나타나, 국내 대학생에 비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구강위생보조용품 구매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는 일반 상점이나 편의점이 가장 많았으며,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동기는 대부분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과 같은 구강병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과 권²⁵⁾의 연구에서는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동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해서가 60.4%로 가장 많았고, 치과의 권장이 33.5%로 조사되었다.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용이 불편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사용법을 몰라서 등이 조사되어 본 논문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구강보건교육 경험유무에서는 44.3%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²¹⁾의 연구에서는 63.6%가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구강보건경험이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우 받지 않은 사람에 비해 올바른 칫솔질을 시행하고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률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²⁵⁾. 구강건강을 증진을 위해서는 올바른 구강보건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므로 외국인 학생을 위한 외국어 구강보건교육 자료 제작 및 구

강보건관련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건강보험 가입 유무에서는 건강보험 가입률이 56.7%인 것으로 조사되어 전체적으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치였으며,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 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건의료서비스는 수요발생이 불규칙하며,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현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질병이라는 위험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위험을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가입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을 유지·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²⁶⁾. 국내에 정상적인 신분으로 체류하는 외국 유학생들도 언제든지 자의에 의해 국내 지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자비부담 유학이 대부분인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건강보험의 지출이 부담이 될 수 있고, 국내 건강보험 가입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 부재도 건강보험 가입을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 당국은 유학생들에게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국내 의료기관 이용에 관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강건강 관심도는 성별, 학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칫솔질 횟수가 많을수록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5$). 또한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구강건강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구강건강행위 실천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즉,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효율적인 학업수행을 위한 구강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제인권규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신체 및 정신상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 때문에 전염병, 풍토병, 직업병 기타 질병의 예방, 치료 및 억제와 질병의 경우에 의료 및 간호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의 창출을 체결국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다²⁸⁾. 또한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리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인종·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사회적 조건 등에 따른 구별 없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선언한 바 있다.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의 구강건강은 궁극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건강한 삶을 통해 국내 적응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비록 국내에 한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이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수학하는 동안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소속된 학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보건의료 관련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내에 체류 중인 유학생의 구강위생관리에 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한정된 지역에만 국한된 관계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함에 제한성이 따를 수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중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전체로 확대하여 좀 더 세부적이고 광범위한 의료이용 실태 조사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충북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중국인 유학생들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충북지역에 체류하는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사용 이유는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구강위생보조용품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사용률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도는 칫솔질 횟수가 많고 구강위생보조용품을 사용할 경우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국 유학생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구강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구강

건강관리 및 구강위생보조용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1. 이주희. 울산 거주 외국인환자의 의로서비스 이용특성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2011.
2. 법무부 출입국. 2010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서울:법무부;2009;22-63.
3. 황해연. 재한 중국유학생의 대인관계 문제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석사학위논문]. 서울:서울대학교 대학원;2007.
4. 오재연, 남민우. 홀리스틱교육에 기초한 다문화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지원방안 연구: 서울 K대학을 중심으로. 홀리스틱교육연구 2009;13(3):131-155.
5. 김선남. 중국 유학생의 국내 대학적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지 2007;10(1):185-206.
6. 이병운, 고준기.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한양법학 2010;31(3):323-352.
7. 이재모. 국내 외국인 적응실태[석사학위논문]. 서울: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2008.
8. 배명수.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행태와 관련요인[박사학위 논문]. 경산:영남대학교 대학원; 2009.
9. 이현옥, 양춘호, 김진, 김영임. 재가 장애인의 구강진료기관 이용실태와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 치위생과학회지 2009;9(5):593-600.
10. 정순희. 의료를 통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선교[석사학위 논문]. 서울:충신대학교 대학원;2009.
11. 김선주. 일부 지역 중고등학생의 구강위생보조용품 사용 실태, 치위생과학회지 2009;9(4):387-395.
12. 이현진.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의 실태[석사학위 논문]. 공주:공주대학교 대학원;2011.
13. 왕페이, 최상복, 이순자 외 6인. 일부 주한 중국유학생들의 음주행태와 관련요인. 한국알코올과학회지

26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구강건강관리실태

2008;9(2):57-71.

14. 장연. 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숙달수준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 분석[석사학위 논문]. 목포:목포대학교 대학원;2005.
15. 유지현.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의복태도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2009;11(2):153-168.
16. 소미현, 김선숙, 신승배. 일부지역의 구강위생용품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10; 10(6):1107-1119.
17. 신차남. 주한 외국인의 의료이용에 관한 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한양대학교 대학원;2002.
18. 조혁수, 전경태. 중국인 유학생들의 대학생활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20(3): 193-223.
19. 노재철. 미등록외국인근로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교노동법논총 2010;18:37-90.
20. 박홍련, 문선정. 일부 대학생의 구강건강지식도 및 예방행태에 관한조사. 치위생과학회지 2009;9(5): 485-490.
21. 노세인. 일부 대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태[석사학위논문]. 대구: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2009.
22. 김영임. 일부 보건계열 대학생의 구강보건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치위생학회지 2008;8(1):23-35.
23. 박승희. 전라북도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비교[석사학위논문]. 익산:원광대학교 대학원;2010.
24. 서은주, 신승철, 서현석, 김은주, 장연수. 한국인의 구강위생용품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3;27(2):177-194.
25. 신경희, 권현진. 일부 대학생이 치과진료 후 구강건강관리 인식에 관한 연구. 대한치과위생학회지 2010; 12(4):315-326.
26. 이영진. 국내거주 외국인 보건의료제도 확립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 서울:한양대학교 대학원;2007.
27.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시행령 제64조 1항 및 시행규칙 제45조
28. UN 국제인권 A규약 제12조.